

“평택지청장 바뀌어도 계속 투쟁한다”

쌍용차 중대재해 얼렁뚱땅 덮은 노동부... “사용자 편에 선 직무유기 두고 보지 않는다”

한 노동자가 지난 7월 15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프레스 협착으로 사망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앞과 인천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현장의 노동자가 다시 다치지 않고, 죽지 않도록 노동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라며 1인 시위, 지청장 면담 요구, 결의대회 등을 벌였다.

노조는 철저한 근로감독과 근본 대책 마련, 금속노조의 감독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12월 말에 임기가 끝나는 이정인 노동부 평택지청장은 끝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를 고소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12월 15일 오전 노동부 평택지청 앞에서 ‘쌍용자동차 산재 사망 부실 대응 노동부 평택지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쌍용차는 평택공장에서 매년 반복하는 산업재해를 은폐했다. 자동설비의 안전센서는 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노동자는 기본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7월 15일 발생한 중대재해 역시 정비 작업 전 설비 전원을



차단하는 기본 원칙을 지켰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다”라며 “쌍용자동차 자본은 생산물량을 맞추려고 압박하며 노동자의 안전은 무시했고, 말도 안 되는 참변이 발생했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평택지청이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감독 과정에서 배제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회사가 어떤 개선대책을 수립했는지, 평택지청이 어떤 내용을 근거로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는지 알지 못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부 평택지청은 사고 현장에서 사고원인을 제대로 조사조

차 하지 않았다”라며 “평택지청은 사업주의 편에 서서 저지른 직무유기를 당장 중단하라”라고 경고했다.

김득중 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압착사고가 난 지 다섯 달이 됐다. 평택지청은 끝내 두 번 다시 압착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하자는 요구를 무시했다”라며 “이정인 지청장이 평택을 떠나더라도 자본의 편에서 직무를 유기한 평택지청을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규탄했다.

김영배 노조 경기기부 부지부장은 “이정인 지청장이 떠나고 새로운 지청장이 오겠지만, 금속노동자들은 새롭게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택지청은 지청장 면담을 요구한 김 부지부장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노동자가 살린 경남제약, 또 투기 먹잇감 되나?

대주주 여덟 번 바뀌는 내내 고용불안 ... 지회, 신창공장 정상화·고용안정 투쟁 돌입

금속노조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는 12월 15일 오전 서울 논현동 경남제약센터 앞에서 ‘떡튀 자본 규탄, 경남제약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경남제약 아산 신창공장 투자와 지속 운영을 외쳤다.

정원영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상장폐지 위기까지 간 경남제약을 노동자들이 겨우 살려냈더니 다시 매각한다고 시끄럽다”라며 “진실이 무엇인지 따져 묻고 경영정상화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정원영 노조 사무처장은 “지난 20년 가까이 경남제약은 기업사냥단골 먹잇감이었다. 다시 매각설이 불거지니 노동자들은 그저 불안하다”라며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경남제약을 주시하고 즉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투기자본 떡튀 행각에 강력한 행정 조치와 처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남제약은 2003년 녹십자상아로 매각됐다. 녹십자를 시작으로 2007년 HS바이오팜 등 2019년 경남바이오파마(옛 바이오제네틱스)가 인수하기까지 경남제약 대주주는 모두 여덟 차례 바뀌었다. 대주주 변경 때마다 떡튀 논란과 경영권 분쟁이 일었다.

무자본 M&A 등으로 회사를 인수한 투기자본들은 경남제약 운영에는 관심이 없었다. 알짜배기 자산 매각 등으로 이익을 챙긴 다음, 또 다른

투기자본에 회사를 넘겼다. 경남제약은 대주주 배임·횡령과 분식회계로 2018년 3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상장폐지에 내몰렸다.



홍유진 경남제약지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의 불법행위로 회사는 여러 번 벼랑 끝에 내몰렸다. 노동자들은 임금·복지 삭감과 노조 탄압에 고통받으면서도 경남제약 회생을 위해 애썼다”라고 증언했다.

홍유진 지회장은 “노동자들이 기껏 회사 잘 돌아가게 만들어냈더니 매각 얘기가 다시 흘러나오고, 노동자들은 피가 마른다”라고 심정을 털어놓았다.

언론 등에 금액이 맞지 않아 매각이 불발된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졌으나, 사측은 매각설을 계속 부인한다. 홍유진 지회장은 “사측이 발뺌하지만, 경남제약에 들어온 투기자본들 모두 그랬다”라며 “투기자본에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기에 자본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현재 경남제약 최대 주주인 김병도 라이브플렉스 회장은 인수매각을 수십차례 진행한 전문 투기꾼이다. 주식거래정지나 경영권 분쟁 중인 기업을 사들인 다음, 설비투자 없이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과 외형 포장으로 주가를 올려 다시 매각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남긴다. 실제 경남제약은 BTS를 레모나 광고모델로 기용해 이미지 개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유진 지회장은 “코로나 19 위기에도 올해 레모나 판매량과 수출계약이 늘었지만, 사측은 레모나 재고를 무시한 채 물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라며 “뒷일은 생각지 않은 채 단기간 수익을 뽑고 회사를 정리하려는 듯한 사측 의도가 뻔히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정용재 노조 충남지부장은 “사측이 경남제약 신창공장 정상화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즉각 나서지 않는다면 경남제약 매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며 “금속노조와 충남지부가 경남제약 지속 운영과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남제약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 경남제약센터 앞 1인 시위, 금융감독원·노동부 압박 등 ‘경남제약 정상화’를 위한 집중행동을 벌인다. 사측 태도를 지켜보며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